

## 고깔형 관모에 관한 연구

강 순 제 · 전 현 실

가톨릭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 가톨릭대학교 의류학과 박사과정

### A Study on the Conical Hat

Soon-Che Kang · Hyun-Sil Jeon

Professor, Dept. of Clothing & Textiles,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Doctor's Course, Dept. of Clothing & Textiles,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2001. 11. 19 투고)

#### ABSTRACT

This paper is extended the meaning and period of CONICAL HAT. That is, the race in Central Asia and Western Asia have worn the conical hat before Scytian appeared. One in conical hat puts on the clothes of two-piece style and has the lifestyle, a horse riding and nomadism. Besides the race originate into the Indo-European language family.

On the whole the conical hat has relations with the region and is classified into two groups, Scytian and Klin-Yar style. First, the Scytian style of low hat forms the seam of two-piece and is discovered in Southern Russia, Central Asia and East-Northern Asia. Second, the Klin-Yar style of high hat forms the one piece and generally is discovered in Asia Minor and west of Altai.

Until now the meaning of the conical hat has focused on the military. However, one in Central Asia and Western Asia is mostly a king, nobility and god. Therefore, in addition to the meaning of military, I estimate that the conical hat may be expressed as the noble status.

Key words: 고깔형 관모(conical hat), 기마·유목(horse riding·nomadism), 이부식 의복(clothes of two-piece style), 인도유럽어족(Indo-European language family)

#### I. 서론

고깔형 관모란 챙이 없고 모체가 뾰족하게 솟은 삼각형상의 관모를 말하며, 우리나라 관모의 기본

형상이기도 하다. 중국의 문헌은 이러한 형상의 우리 관모를 가리켜 특별히 '形如弁'이라 기록하고 있는데, 이 고깔(갓)이란 '弁'의 우리말 풀이로서, 그 어원적 해석은 尖角·돌출부를 의미하는 '갓'과

쓰개를 의미하는 '갈'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뾰족한 관모라는 뜻이다.

선행 연구에 의하면, 이러한 우리의 고깔형 관모는 앞에서 뒤쪽으로 봉합선이 있는 삼각형상의 관모로서, 이는 기원전 8세기에서 기원전 3세기 사이에 흑해 지역을 중심으로 활발한 활동을 전해하였던 스키타이 관모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sup>1)</sup> 그러나 고깔형 관모의 착용 예를 찾아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스키타이인들이 역사무대에 등장하기 이전부터 중앙아시아 및 서아시아 등지에서 생활하고 있던 민족들에게서도 발견되고 있어 고깔형 관모의 착용은 보다 일찍 폭넓은 지역에서 착용되고 있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그런데, 이들 고깔형 관모를 쓰고 있는 인물들을 일별해 보면, 이들은 모두 二部式 衣服을 착용하고 있고, 騎馬·遊牧 등의 활동적인 생활 방식을 공유하고 있고, 고깔형 관모는 대체로 분포 지역과 상관관계를 가지며 형태상의 두 가지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음에 주목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깔형 관모의 분포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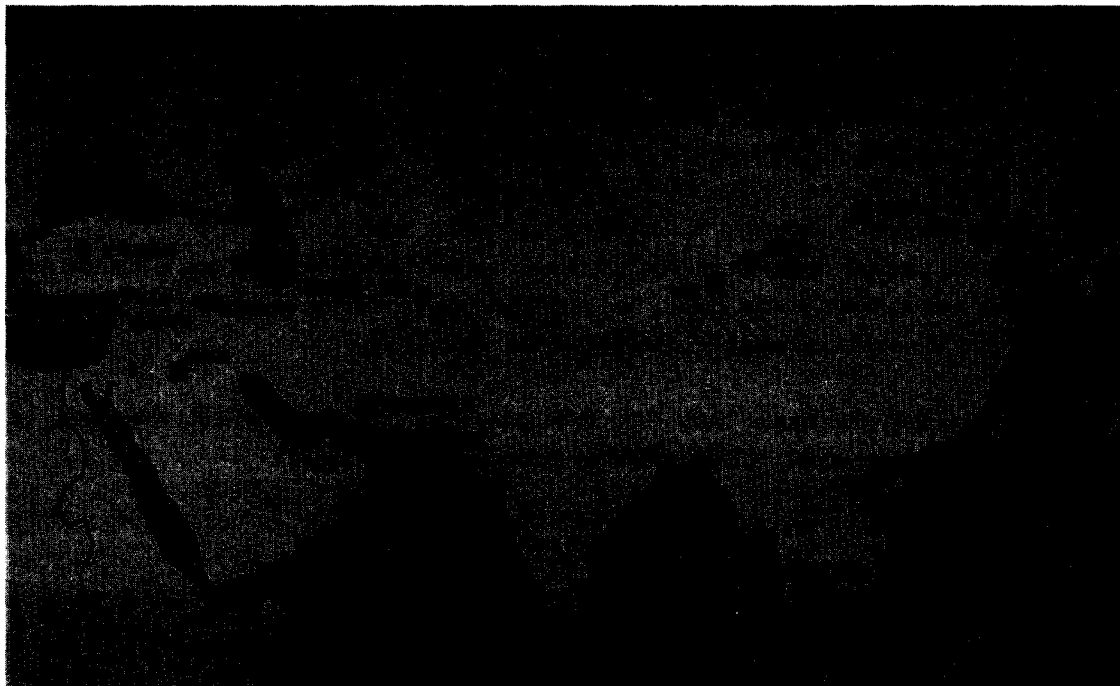
을 중심으로 고깔형 관모와 遊牧·騎馬生活을 하는 민족과의 상관관계, 분포유형 및 착용양태를 고찰하고, 지역에 따른 고깔형 관모의 유형별 분포와 분포지역과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기원전 18세기부터 기원 후 6세기의 유물인 부조, 조각, 벽화의 사진 자료와 관련 문헌 자료를 중심으로 나타난 고깔형 관모들을 비교·분석하였다.

## II. 고깔형 관모의 지역적 분포

### 1. 고깔형 관모의 분포 지역

지금까지 보고된 쟁이 없고 끝이 뾰족한 형태의 관모는 기원전 18세기부터 기원 후 6세기에 걸쳐 흑해 부근, 누란, 하트라, 노인-우라, 통일신라의 경주, 스타브로폴, 히타이트의 보카즈코이, 팔미라, 체르첸, 넴루트다이, 달베르진-테페, 알마아타, 아스타나 등지에서 보여지고 있다.<그림 1>



<그림 1> 고깔형 관모의 지역적 분포

## 2. 분포지역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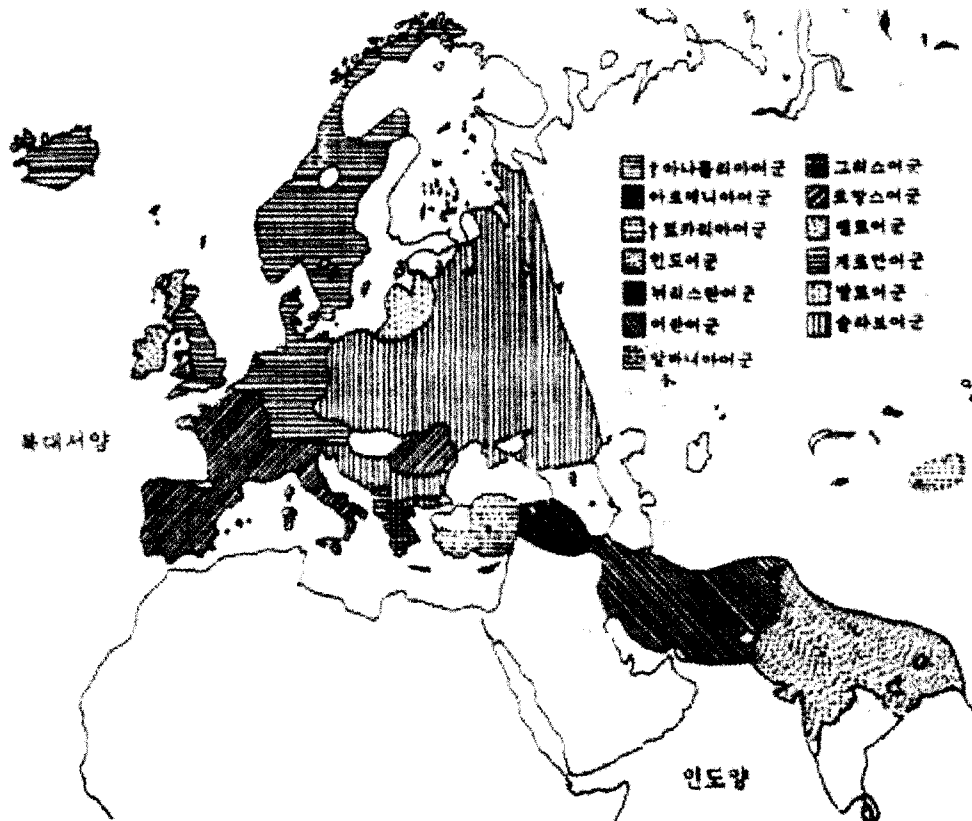
<그림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고갈형 관모형 유물이 전해지고 있는 서아시아서 중앙아시아에 이르는 광대한 지역은 건조한 스텝(Steppe, 草原)이 대부분을 차지하여 오랫동안 遊牧生活의 형태가 지속되던 곳이었으며, 인도·유럽어족에 속하는 민족이 주로 이루었던 곳이다.

遊牧은 그 특장상 가축을 방목하기 위한 목초지를 찾아 주기적으로 이동하며 살아가는 생활방식<sup>2)</sup>으로서, 원칙적으로 농경을 행하지 않는 생활방식을 말한다. 따라서 계절에 따른 이동은 가축으로부터 최대의 생산력을 얻기 위한 효율적인 방법이며, 그들을 둘러싼 자연 조건에 따른 필수 불가결의 선택이므로, 유목민의 형성은 이러한 역사·지리적 조건 하에서 가능한 것이었다.<sup>3)</sup>

이들의 衣服은 이동하는 遊牧과 騎馬生活에 편리하고 효율적인 의복이 요구되었기 때문에 上衣와 下衣가 분리된 窄袖形의 二部式 衣服 形態를 보이고 있다.

또한 이들은 스스로만의 생활방식으로는 다양한 물자의 공급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물물교환 형식으로 농업 사회와의 공존을 꾀했고, 때로는 기마를 통해 농업사회를 약탈하기도 했는데, 기마라는 방식의 개발은 유목민들의 기동성에 탄력을 주게 되면서 이들은 뛰어난 상업성과 기동력을 바탕으로 中繼貿易을 통해 이윤을 취하기도 하였다.<sup>4)</sup>

한편 파미르 고원에서 유럽 중동부의 초원지대에 걸친 지역에는 기원전 4000년경부터 인도·유럽어족이 목축을 주된 생업으로 삼고 살고 있었는데, 이들은 신석기 문화를 가졌던 尙武的 民族이 있었다. 이 민족들은 인도에서부터 유럽 대부분의 지역에



<그림 2> 인도·유럽어족 분포 지역  
(출처: 비교-역사언어학)

분포하는 언어족으로, 크게 발트슬라브어파·게르만어파·켈트어파·이탈릭어파·토가라이어파·인도이란어파·아나톨리아어군·그리스어파로 분류된다. 이들 공통의 祖語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기원전 2천년경 분산·이동하여<sup>5)</sup>, 카프카즈(Kavkaz)의 북쪽 경사면의 쿠반강(Kuban 江) 유역의 스텝지역으로 이주하면서 그 지방의 원주민을 정복하고 여기에 그들의 최초의 부족국가를 세웠다. 이 유목민족의 국가는 북방에서의 압박으로 인해 다시 남쪽으로 이동하여 동카프카즈에서 아르메니아의 산지를 거쳐 아나톨리아(Anatolia) 즉, 소아시아의 스텝지역으로 이동<sup>6)</sup>하여 정착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특히 고갈형 관모의 유물이 전해지고 있는 스텝지역의 주거민족은 인도·유럽어족 민족 중에서 발트슬라브어파, 인도이란어파, 아나톨리아어군 등으로서, 이들은 기마유목생활을 위주로 한 문화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사료된다.<그림 2>

### III. 고갈형 관모의 유형

#### 1. 지역에 따른 고갈형 관모의 유형별 분포

고갈형 관모는 러시아 남부와 서아시아 및 중앙아시아와 동북아시아 지역에 걸친 광대한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분포지역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하나는 帽頂이 낮은 고갈형 관모로서 흑해 부근,

하트라, 누란, 노인-우라 등지에서 보여지고 있는 형태이다. 이는 스키타이인들이 썼던 관모와 유사한 형태로 정면에서 보았을 때 이등변삼각형의 형태를 띠는 것으로서 앞에서 뒤쪽으로 봉합선이 있도록 바느질 한 것이다. 이를 '스키타이식 고갈형 관모'로 명명하고자 한다. 다른 하나는 모정이 높고 뾰족한 높은 고갈형 관모로서, 스타브로폴, 보카즈 페이, 팔미라, 넴루트다이, 하트라, 달베르진-테페, 알마아타 등지에서 보여지고 있는 것이 그 예이다. 이는 부채꼴 형태의 하나의 면을 원추 형태로 만들어 봉합한 형상인데, 스타브로폴 크린-야르(Klin-Yar) 3세의 묘 186호분 출토 청동투구의 제작 방법과 유사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를 '크린-야르식 고갈형 관모'로 지칭한다.<그림 18> 참조)

우리 나라에서도 고유 관모의 기본형상으로 특히 스키타이식 고갈형 관모가 주목되어 왔고, 이는 다수의 高句麗 古墳壁畫나 古新羅 古墳遺物, 百濟의 畫瓦弁冠 등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있다. 그런데, 統一新羅 隍城洞 古墳의 人物 土俑 중에서, 서역인으로 보이는 인물이 上代 우리의 弁狀冠帽와는 다른 유형의 고갈형의 관모를 착용하고 있어<sup>7)</sup> 이는 고갈형 관모의 광대한 지역적 분포상황과 연관지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그림 3>

#### 1) 스키타이식 고갈형 관모

스키타이식 고갈형 관모의 출토지, 착용자의 신분, 시기는 <표 1>과 같다.

<표 1> 스키타이식 고갈형 관모

관모 형태	유물명	출토지	신분	시기
스키타이식 고갈형 관모	아파다나성 기초석 측면상의 스키타이 사절단<그림 4>	페르세폴리스	사절단	BC 5세기
	항아리에 조각된 스키타이인<그림 5>	쿨-오바	병사	BC 4세기
	펠트·모피제 변형모<그림 6>	누란	지배계급	BC 2~3세기
	絹製弁形帽<그림 7>	노인-우라	왕	BC 1~AD 1세기
	파르티아 신관상<그림 8>	하트라(파르티아)	신관	BC 3~AD 3세기
	파르티아 귀족상<그림 9>	하트라(파르티아)	귀족	AD 1~2세기
	기마청동상<그림 10>	파르티아	병사	BC 3~AD 3세기
	우타르 왕상<그림 11>	하트라	왕	AD 2세기
	사나트르크 2세 입상<그림 12>	하트라	왕	AD 3세기
	白樺樹皮制 弁形帽<그림 13>	신라	왕	AD 5~6세기
金屬製 弁形帽<그림 14>	신라	왕	AD 5~6세기	

(1) 아파다나성 기초석 측면상의 스키타이 사절단<그림 4>

이 부조는 기원전 5세기 페르세폴리스 유적 중, 아케메네스 왕조의 다리우스왕 시대에 아파다나성(Apadana: 공식 알현을 위한 대광장)의 기초석 측면상의 일부로써, 이에는 23개국 사절단이 묘사되어 있는데, 제시한 그림은 그 중 스키타이 사절단을 표현한 것이다. 매년 신년을 맞이하여 아케메네스조가 지배했던 23개의 식민지에서 대표 사절을 파견했다. 이들이 각각 특산물과 보물을 지니고 조공하는 모습을 행렬풍으로 묘사한 것이 조공행렬도인데, 이 행렬도에는 冠帽, 髮樣, 衣服, 신발 등이 묘사되어 있다. 또한 등장하는 소, 낙타, 어린사자, 다수의 모피, 금은제 장신구와 식기류까지 세밀하게 조형화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sup>8)</sup> 스키타이인들은 착수 궁고의 이부식 의복에 끈을 턱에 고정시킨 관모<sup>9)</sup>를 쓰고 있다.

(2) 쿨-오바 출토 항아리에 조각된 스키타이인<그림 5>

이는 크리미아 반도의 쿨-오바에서 출토된 엘렉트랩(금·은의 합금)의 항아리<sup>10)</sup>로, 이 항아리에는 스키타이 전사가 활을 만들거나 무기를 끈으로 감싸는 동작을 묘사하였다. 이들은 窄袖形의 이부식 의복을 입고 있고 턱에서 끈으로 고정시키는 고깔형 관모를 쓰고 있다.

(3) 펠트·모피제 弁形帽<그림 6>

이는 누란의 지배계급의 묘에서 출토된 기원전 2-3세기경의 모자류로 펠트와 모피제가 포함되어 있다. 모피의 종류는 양, 검은 담비, 새끼양 등이고, 모자에 깃 장식을 한 것도 있다. 형태는 전술한 스키타이인들의 관모와는 조금 다른 점이 있으나 흥미롭게도 우리의 고대 고깔형 관모와 형태상 거의 근접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누란의 의복 형태는 중앙아시아에서 일반적이었던 筒袖의 上衣와 짧은 치마 혹은 바지를 착용한 이부식이다.

(4) 노인-우라 제6호분 출토 絹制弁形帽<그림 7>  
이 관모는 几字形으로 자른 2매의 천을 봉합한

형태로, 착용시 정면에서 보면 圓頂形으로 보인다. 이 관모에는 좌우에 絹制의 끈이 달려있고, 끈의 뒷부분은 둘로 갈라져 있어 양쪽 귀를 내놓고 착용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이러한 형태는 우리나라 고깔형 관모의 原形일 것으로 지적된 바 있기도 한 것이다.<sup>11)</sup> 이와 함께 모직으로 된 교임의 상의와 바지의 하의가 동시에 출토되고 있어, 이 관모는 이부식 의복과 함께 착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5) 파르티아 신관상<그림 8>

파르티아(Partia) 왕국의 도시 하트라(Hatra) 유적 중 돌에 새겨진 파르티아 신관상이다. 이 신관상은 수염을 기르고 단발머리를 하고 있는데, 앞에서 뒤로 봉합된 것으로 보이는 스키타이식 고깔형 관모에 착수의 튜닉(tunic)과 窮袴를 입고 있다.

(6) 파르티아 귀족상<그림 9>

이 인물상은 파르티아 귀족상이라 추정되는 것으로 하트라에서 출토된 것이다. 앞서 본 신관상 보다는 조금 높은 고깔형태를 보이고 있으나 기본 구성은 스키타이식 고깔형 관모와 동일하다. 이와 함께 무릎 길이의 튜닉에 바지를 입고 있다.

(7) 청동기마상<그림 10>

이 靑銅像은 말탄 전사가 추적자를 향해 화살을 쏘는 모습을 보여준다. 스키타이 출신의 파르티아인은 마상 묘기가 뛰어났다<sup>12)</sup>고 하는데, 의복은 짧은 소매의 밀착된 튜닉을 입고 바지 또한 활동에 편리하게 입고 있다.

(8) 우타르 王像<그림 11>

한 손을 올려 서약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고, 마름모 모양의 튜닉과 주름이 저 있는 바지 위에 여미지 않은 카프탄(kaftan)을 걸치고 있다. 머리에는 하트라 출토의 다른 관모와는 구성방법에 있어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2매를 봉합한 스키타이식으로 사료된다.

(9) 사나트르크 2세 立像<그림 12>

양손에 守神像을 들고 있는 사나트르크 2세 입상

은 로마의 공격으로부터 하트라를 지켰던 武人이다. 이 상은 문양의 세부까지 완전히 좌우 대칭으로 구성된<sup>13)</sup> 무릎 길이의 튜닉에 바지를 입고 있고 머리에는 <그림 11>과 유사한 구성의 관모를 쓰고 있다.

(10) 白樺樹皮製 弁形帽<그림 13>

경주 飾履塚, 金冠塚, 天馬冢에서 출토된 것으로 帽頂이 圓頂形인 弁形帽類와 方頂形인 弁形帽類가 있는데, 이는 2매의 白樺樹皮를 합쳐서 둘레를 꿰맨 것으로 모정이 원정형이거나 방정형인 것에 관계없이 앞에서 본 모양은 전부 이등변삼각형의 弁形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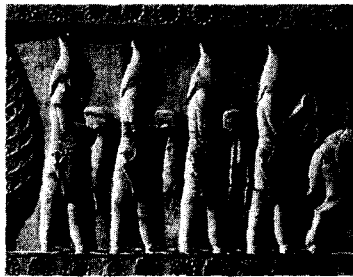
하고 있다.<sup>14)</sup> 의복은 우리나라 고유의 이부식 형태의 복식을 변형모와 함께 착용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11) 天馬冢 金製冠帽의 金屬製 弁形帽<그림 14>

천마총 금제 관모는 新羅 皇南洞 제98호분 銀製冠帽<sup>15)</sup>와 마찬가지로 얇은 金版 2매를 이어 만들고 山形文을 全面에 투각하였다. 그리고 관모 下緣 주변의 金具에는 못 구멍이 여러 개 뚫려 있는데, 이것은 위치로 보아 관모에 달린 끈을 꿰는 구멍일 것으로 추측된다.<sup>16)</sup>



<그림 3> 황성동 인물토용(출처:신라인의 무덤)



<그림 4> 스키타이사절단  
(출처: 유네스코세계유산-서아시아)



<그림 5> 스키타이인  
(출처: 한국복식문화의 원류)



<그림 6> 펠트·모피제 변형모  
(출처: 한국복식문화의 원류)



<그림 7> 견제 변형모  
(출처: 한국복식문화의 원류)



<그림 8> 파르티아신관상  
(출처: 유네스코세계유산-서아시아)



<그림 9> 파르티아귀족상  
(출처: 동양미술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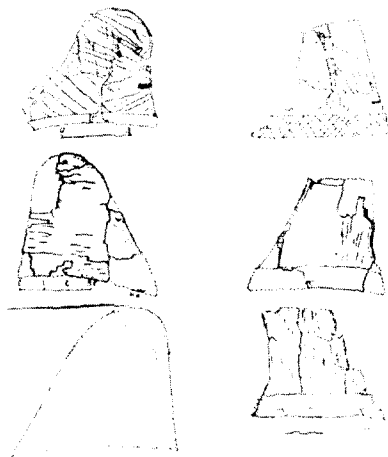
<그림 10> 기마청동상  
(출처: 원시에서현대까지인류생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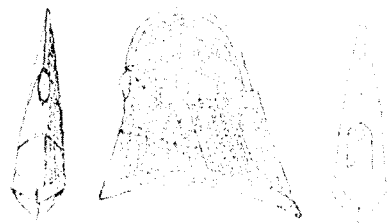
<그림 11> 우타르왕상  
(출처: 古代西アジア 美術)



<그림 12> 사나트르크2세입상  
(출처: 古代西アジア 美術)



<그림 13> 백화수피제변형모  
(출처: 한국복식문화의 원류)



<그림 14> 금속제변형모  
(출처: 신라인의 무덤, 한국복식문화의 원류)

2) 크린-야르식 고깔형 관모

크린-야르식 고깔형 관모의 출토지, 착용자의 신분, 시기는 <표 2>와 같다.

곳은 실크로드의 한 갈래인 서역남도에 위치한 지역이다. 이 관모는 삼각형으로 첩이 유난히 높은 고깔 형태를 하고 있는데, 실물을 확인할 수 없어 확

<표 2> 크린-야르식 고깔형 관모

관모 형태	유물명	출토지	신분	시기
크린-야르식 고깔형 관모	야질리카야 사원의 신과 왕의 부조<그림15>	보카즈콰이(히타이트)	神	BC 12세기경
	야질리카야 사원의 신의 행렬 부조<그림16>	보카즈콰이(히타이트)	神	BC 12세기경
	검은색 펠트제 첨형모<그림17>	체르첸(且末)	지배계급	BC 9세기경
	크린-야르 3세묘 출토 청동관모<그림18>	스타브로폴	왕	BC 8세기말~ BC 7세기초
	이썬 쿠르간 황금인간<그림19>	알마아타	왕자(귀족)	BC 5세기
	안티오코스 1세 두상<그림20>	넴루트다이 (콤폴라네제 왕국)	왕	BC 34년경
	파르티아 사제 벽화<그림21>	팔미라(시리아)	사제	AD 1세기
	왕자 두상<그림22>	달베르진-테페	왕자	AD 6세기
	木製 馬夫像<그림23> 加彩 胡人像<그림24>	아스타나 산서성	마부 상인	AD 6세기

(1) 야질리카야 석굴사원의 신과 왕의 부조(그림 15)  
야질리카야(Yazilikaya)는 '문자가 새겨진 바위'라는 뜻으로, 신전은 자연의 바위틈을 이용하여 만든 크고 작은 2개의 回廊과 바위 앞에 지은 건물로 이루어져 있다. 이 부조는 수호신 샤를무마가 히타이트 왕을 감싸안은 것을 표현했다. 벽면 오른쪽 위의 상형문자는 왕의 이름인 투드할리아스 4세(Tudhaliyas IV, 재위 기원전 1250-1220년)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는 히타이트 왕국의 위대한 왕들 중의 한 명이기도 하다.<sup>17)</sup> 이 끝이 뾰족한 고깔형 관모를 쓰고 있는 수호신 샤를무마는 튜닉 위에 긴 길이의 망토를 걸치고 있다.

(2) 야질리카야 석굴사원의 신의 행렬 부조(그림 16)  
야질리카야 석굴 사원의 동쪽 벽에 나타난 부조로 十二神의 행진상이다.<sup>18)</sup> 각각 원추형의 높은 크린-야르식 고깔형 관모를 쓰고 있고, 筒袖의 무릎 길이 튜닉에는 帶를 매었고, 바지를 입고 있다.

(3) 검은색 펠트제 첨형 관모(그림 17)  
이 관모는 신강 위구르 자치구 박물관 소장품으로, 기원전 9세기경의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첨형 관모이다. 출토된 지역은 고대 누란왕국의 옛 지역 중의 하나인 현 신강성의 체르첸(且末)으로,<sup>19)</sup> 이

신하기는 어려우나 이러한 형태의 관모는 제작 상이등변 삼각형으로 재단한 1매의 펠트를 백색의 毛絲로 봉합하여 만든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삼각형으로 재단한 2매의 펠트를 백색 모사로 봉합시킨 형태로 보는 견해<sup>20)</sup>도 있다.

(4) 크린-야르묘 출토 청동제 고깔형 관모(그림 18)  
이는 남러시아의 스타브로폴(Stavropol)의 크린-야르(Klin-Yar) 3세의 묘 186호분에서 출토된 청동 투구이다.<sup>21)</sup> 이 투구는 얇은 청동판을 원추형으로 말아 접합했고 양 볼에 드립 형태의 것이 늘여져 있다. 또한 관모의 外緣에 있는 여러 개의 구멍은 필요상 무엇인가를 연결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되나 확신할 수는 없다. 다만 스키타이식 고깔형 관모와는 구성이나 형태에서 확연히 다른 독특한 구성임을 잘 보여주는 자료이다. 의복의 형태는 연대가 조금 떨어지기는 하나 이 근처에서 발굴된 유물인, 알라지베코브스키 묘지 '5인 형제' 고분군 8호묘에서 출토된 기원전 4세기 경의 스키타이인을 묘사한 3개의 裝飾 金具<sup>22)</sup>와 코브야코보 묘지 10호분에서 출토된 1세기 말에서 2세기 전반의 것으로 보이는 둥근 머리장식<sup>23)</sup>에 나타난 인물을 통해 교임의 이부식 의복을 착용하고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 (5) 이썩 고분의 황금인간&lt;그림 19&gt;

알마아타(Alma-Ata) 부근의 이썩(Issik) 고분에서 발굴된 황금인간은 나이 16-17세에 신장 약 160cm 정도의 왕자상으로 추정된다. 이썩 고분에서는 스키타이식으로 보이는 약 2백여 점의 動物意匠(Animal Style)을 포함한 4천여 점의 금제품 유물이 발굴되었는데<sup>24)</sup>, 이러한 사실은 이들이 수렵·유목생활 문화를 영위하였음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이 황금인간은 좌입의 상의와 밀착되는 바지에 끝이 관모의 좌우에 높은 立飾을 장식한 뾰족한 원추형의 고깔형 관모를 쓰고 있다.

## (6) 안티오코스 1세 두상&lt;그림 20&gt;

이 두상은 넴루트다이에 쌓은 콤파네게 왕국의 안티오코스 1세(재위 기원전 69년-기원전 34년)의 것이다. 넴루트다이는 아나톨리아(Anatolia, 소아시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안티트로스 산맥의 남동쪽에 위치한다.<sup>25)</sup> 안티오코스 1세 두상은 원추형의 고깔형 관모를 쓰고 있고, 당시의 의복 형태는 두상 뒤로 보이는 벽면 부조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긴 길이의 튜닉에 바지를 입은 것으로 보여진다.

## (7) 파르티아 사제&lt;그림 21&gt;

이는 시리아 사막에 있는 隄商 도시인 팔미라(Palmira)의 분묘에 그려진 벽화이다. 시리아는 문명이 시작된 이래 항상 주변의 강대한 제국의 군사력, 경제력, 문화가 교차되는 장소로, 소형 도시국가의 흥망이 되풀이되었던 곳으로, 팔미라도 그 중의 하나였다.<sup>26)</sup> 이 그림에서 보이는 사제는 페르시아풍의 긴 튜닉과 원추형의 고깔형 관모를 쓰고 있다.

## (8) 달베르진-테페의 왕자상&lt;그림 22&gt;

이 두상은 발흐(Balkh) 북부에 위치한 달베르진-테페의 왕자를 표현한 것으로, 이러한 형태의 관모는 중앙아시아 일대의 여러 민족이 쓰던 일반적인 형태의 관모였다.<sup>27)</sup> 달베르진-테페는 쿠산 예술의 영향이 미쳤던 곳이고, 쿠산족은 북방 스텝지역에서 이동한 기마유목민족이었으므로<sup>28)</sup>, 이에서 미루어 복식도 이부형식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 (9) 木制 馬夫像&lt;그림 23&gt;

소그드인으로 추정되는 목제 마부상으로<sup>29)</sup> 翻領의 상의와 바지로 구성된 胡服을 입고, 머리에는 크린-야르식 고깔형 관모를 쓰고 있다. 이들의 거점은 중앙아시아의 소그디아나로, 파미르 고원에서 아무다리아(Amudariya)강과 시르다리아(Syrdariya)강의 협곡에 있는 오아시스 지역이다. 이곳은 풍요로운 토지이고 동서남북 어디에도 통하는 지역적 이점 때문에 옛날부터 상업이 발달하고, 사람과 물건, 정보와 문화가 대량 유입되었다. 또한 소그디아나는 강가의 초원지대에 접하고 있어 외부 세력의 침입과 지배를 자주 받았다.<sup>30)</sup> 소그드인들은 이익 계산을 잘하는 상인이었고, 실크로드의 교역 이권을 장악하고 있었다. 중국 문헌에 자주 등장하는 '商胡', '胡人'은 서방에서 찾아온 상인, 즉 소그드인이나 페르시아인 등을 가리키는 말인데, 그 대부분은 소그드인을 뜻한다. 唐代에는 서역의 호인들이 용단, 유리, 악기, 약품 등의 물건을 장안으로 싣고 와서 서방 문화의 영향을 미쳤다.<sup>31)</sup>

한편 新羅의 隄城洞 古墳 人物 土俑 중에서 西域人으로 추정되는 人物像들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반도에서의 서역 유물의 발굴과 아랍문헌 속에서의 신라 내왕 및 신라의 대 아랍·이슬람 제국 수출품에 관한 기사, 아랍·이슬람 제국의 문물을 일본에 중개 수출했다는 일본 正倉院 文書의 내용과 고려 초에 大食 상인들이 象譯차 來麗했다는 등의 제반 사실을 감안할 때, 신라와 서역간의 관계는 唐을 통한 간접적 관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직접적 내왕과 교역도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 하겠다. 특히 중개무역에 관한 내용으로, 일본 정창원에 소장되어 있는 《鳥毛立女屏風下貼文書》 중의 〈買新羅物解〉의 기록에 따라 신라가 주변 나라들과 직접 무역뿐만 아니라 중개무역도 진행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sup>32)</sup>

## (10) 加彩 胡人像&lt;그림 24&g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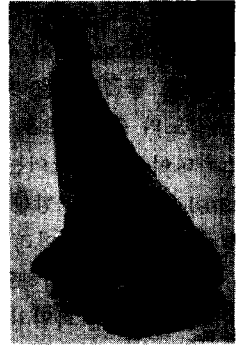
등에 짐을 짊어진 人物像인데, 胡人(소그드인)으로 추정된다. 이는 무릎길이의 翻領衣에 바지를 입고 있고, 끝이 뾰족한 고깔형 관모를 쓰고 있다. 특히 이 인물의 관모는 신라 황성동 인물 토용의 고깔형 관모와 유사하다.(〈그림 3〉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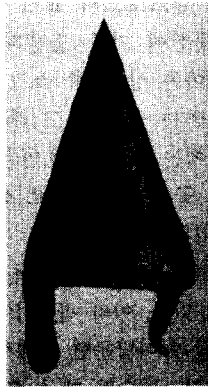
<그림 15> 신과 왕의 부조  
(출처: 유네스코세계유산-서아시아)



<그림 16> 신의행렬 부조  
(출처: 유네스코세계유산-서아시아)



<그림 17> 펠트제침형모  
(출처: 누란왕국의 출토복식 연구)



<그림 18> 크린-아르 청동관모  
(출처: 南ロシア騎馬民族の遺宝展)



<그림 19> 황금인간  
(출처: 금관의 비밀)



<그림 20> 안티오코스1세 두상  
(출처: 유네스코세계유산:서아시아)



<그림 21> 파르티아사제  
(출처: 시리아국립박물관)



<그림 22> 왕자두상  
(출처: 당시대호복연구)



<그림 23> 목제 마부상  
(출처: 중국복식5천년)



<그림 24> 호인상  
(출처: 당시대호복연구)

## 2. 착용양태와 분포지역과의 상관관계

두 유형의 고깔형 관모를 일별해 보면, 대체로 모정이 낮은 스키타이식 고깔형 관모는 흑해 연안의 남러시아, 중앙아시아의 동북부 지역과 신라를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고, 모정이 뾰족하게 높은 원추형의 크린-야르식 고깔형 관모는 소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알타이 산맥 以西 지역에 나타나고 있어 형태별 분포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중앙아시아에는 두 유형의 고깔형 관모가 공존하고 있는데, 이는 기마·유목적 성격을 띄고 있는 인도·유럽어족의 이동, 분산에 따른 것으로 해석해보고자 한다.

## IV. 요약 및 결론

일반적으로 고깔형 관모는 기원전 8세기에서 기원전 3세기 사이에 흑해 지역을 중심으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였던 스키타이인들의 관모에서 그 始原을 찾아왔다. 그러나 스키타이인들이 활동하던 시기 이전부터 고깔형 관모는 남러시아 부근에서 서아시아 및 중앙아시아 지역을 포함하는 광대한 스텝지역의 기마·유목 민족들에게서 그 착용이 확인되고 있다. 이들은 인도·유럽어족이라는 동일 언어에서 파생되어 나온 민족으로 모두 二部式 衣服을 착용하고 騎馬·遊牧 등의 활동적인 생활방식을 공유하고 있어, 고깔형 관모는 상하 이부식 의복과 함께 기마·유목생활을 하는 민족의 공통적인 관모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고깔형 관모는 구성방법과 지역 분포에 따라 스키타이식 고깔형 관모, 크린-야르식 고깔형 관모의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帽頂이 낮은 스키타이식 고깔형 관모는 2매의 천을 맞대고 봉합한 형상으로, 흑해연안의 남러시아와 중앙아시아 동북부 지역, 동북아시아를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고, 帽頂이 높은 크린-야르식 고깔형 관모는 부채꼴 형태의 하나의 면을 원추 형태로 만들어 봉합한 형상으로, 소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알타이 산맥 以西 지역에 나타나고 있다.

고깔형 관모는 무풍적·상무적 성격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이는 기마유목민족의 이부식 의복형태와 결부되고 있다는 것에는 지금까지 異見이 없다. 그런데, 중앙아시아 및 서아시아 등지에서 보여지는 높은 고깔형 관모의 착장자는 본 연구를 통하여 흥미롭게도 주로 왕이나 귀족, 신 등으로 나타나고 있어 고깔형 관모는 무풍적 성격 외에도 고귀한 신분을 표현하는 데에 사용되었을 것으로 짐작하게 된다. 이는 히타이트 유적에 나타난 문자를 해석한 P. Jensen(1861~1936)에 의해 첨두형의 삼각형(a)들은 '왕'을 의미하고, 삼각형 두 개가 겹치면(b) '위대한 왕'이라 하고 있음<sup>33)</sup>도 그 형상의 유사성과 관련해 유념해 볼 수 있는 부분으로 사료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시기상 고대에 속하는 소수의 사진 자료를 바탕으로 고찰한 것이므로 연구 분석에 한계가 있을 것이나 고깔형 관모가 남러시아와 서아시아 및 중앙아시아와 동북아시아에 걸친 스텝지역의 유목민족에게서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결과에서 연구자는 上代 우리의 弁狀冠帽와는 다른 유형의 고깔형 관모를 착용하고 있는 新羅의 隍城洞 古墳 출토 土俑의 모습에 주목해 보고 싶다.(〈그림 3〉 참조) 이 異國의인 인상의 토용은 西域人으로 추정되는데, 掛陵의 석상에도 이국적 인물상이 있어서 신라에 외국인이 거주했던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sup>34)</sup> 이 인물의 관모에 대하여 具仁淑은 弁形幘頭<sup>35)</sup>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나 이는 논의를 필요로 한다. 즉 이 관모는 모체가 아주 뾰족한 고깔형이면서, 후두부의 관모 테두리가 수평으로 조금 도드라진 형태로 표현되고 양끝이 파손된 것처럼 되어 있는 데에서 이를 後脚으로 보아 弁形幘頭라 하였겠으나, 토용의 연대로 지목되는 7세기 전반의 복두의 脚(後脚)은 軟脚으로써 좌우로 펼쳐진 展脚은 없다. 반면에 고깔형 관모의 밑면 테두리가 도드라지게 표현된 것은 〈그림 16〉, 〈그림 20〉, 〈그림 23〉, 〈그림 24〉에서도 확인되는 바다. 新羅의 對外貿易을 통한 西域과의 관계는 학계에 어느 정도 인정되고 있기는 하나 服飾과의 연계성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토용에서 보이는 관모가 신라의 對 西域關係를 설명하는

데에 어느 정도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이는 앞으로의 연구 과제로 삼고자 한다.

### 참고문헌

- 1) 김문자(1994). <韓國服飾文化의 原流>. 民族文化社, p.155.
- 2) <브리태니커세계대백과사전17>(1993). 한국브리태니커, p.281.
- 3) <두산세계대백과사전20>(1996). 두산동아, p.397.
- 4) 金聲近 외(1979). <世界文化史大系:문명의 발생>. 大學堂, pp.236-239, pp.245-246.
- 5) <PASCAL세계대백과사전22>(1999). 동서문화, pp.12896-12898.
- 6) 李龍範 감수(1987). <대세계사:고대 문명의 성쇠>. 太極出版社, pp.80-81.
- 7) 이 토용의 관모에 대하여 구인숙(1989, 이화여대 박사학위 청구논문 p.66, 74)은 弁形幘頭라고 명명한 바 있으며, 연구자(1993, 서울여대 박사학위청구논문 p.79)는 '복두'라는 용어에 대한 인식의 재고와 함께 이 관모에 복두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을 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 8) 松原三郎, 최성은 외역(1993). <동양미술사>. 예경, pp.496-498.
- 9) 이때 이 부조가 서아시아 지역(페르세폴리스)에서 출토되기는 하였으나 스키타이인들의 주요 거점은 흑해 부근이므로 이들의 관모를 흑해 지역에 포함시켰다.
- 10) 杉本正年, 문광희 역(1995). <동양복장사논고: 고대편>. 경춘사, p.402.
- 11) 김문자, 윗글, p.39.
- 12) <원사에서 현대까지 인류생활사>(1994). 동아출판사, p.108.
- 13) 新規矩男 외 편집(1975). <古代西アジア 美術>. 東京: 學習研究社, p.185.
- 14) 김문자, 윗글, pp.39-42.
- 15) 銀板 2매를 이어 만든 원형모 - 앞글, p.50.
- 16) 앞글, pp.50-52.
- 17) C. W. Ceram(1956). <The Secret of the Hittites>. New York: Alfred A. Knopf, p.104.
- 18) 新規矩男 외 편집, 윗글, p.280.
- 19) 朴京子(1997). <樓蘭王國의 出土服飾에 關한 研究>. 《중앙아시아연구 제2호》, p.94.
- 20) 앞글, p.96.
- 21) <南ロツア騎馬民族の遺宝展:ハルニズム文明との出會い>(1991). Japan: 朝日新聞社, p.44.
- 22) 앞글, p.64.
- 23) 앞글, p.111.

- 24) 洪榮伯(1993). <유라시아의 輿地 중앙아시아-西方의 실크로드 및 중앙아시아의 불교문화->. 《실크로드의 문화6:草原路》. 동국대학교, pp.215-216.
- 25) 유네스코세계유산위원회(2000). <유네스코세계유산: 서아시아>. 중앙M&B, p.212.
- 26) 金素賢(1994). <唐時代의 胡服에 關한 研究>.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p.55.
- 27) 앞글, p.61.
- 28) 松原三郎, 최성은 외역, 윗글, pp.358-359.
- 29) 돈황 부근(아스타나)에서 출토되기는 하였으나 소그드인들의 주요 거점이 소그디아나이므로 이들의 관모를 소그디아나에 포함했다.
- 30) 杉山正明, 이진복 역(1999). <유목민이 본 세계사>. 학민사, pp.60-61.
- 31) 에.뵘,샤브꾸노프 쉐, 송기호·정성배 역(1996). <러시아 연해주와 발해역사>. 민음사, p.168.
- 32) 무함마드 간수(1992). <新羅·西域交流史>. 단국대출판부, pp.198-236.
- 33) C. W. Ceram, 윗글, p.106.



- 34) 김병모(1998). <금관의 비밀>. 푸른역사, pp.49-50.
- 35) 구인숙(1989). <경주 황성동 고분 출토 토용의 복식사적 의미>. 《복식 제13호》, 한국복식학회, p.35.